

판따라에서 스타까지...비뚤어진 '연예인 공화국'

연예인도 사람이다

배국남 지음

"나는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판따라인 것이 좋다. 영원히 판따라의 길을 가겠다." (송해)
"연기자는 작품과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기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일정 정도 일조할 수 있어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김혜수)



지난 3월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진행된 고 이선균 등 타계배우 추모 공연. (ABC 방송화면 캡처)

정신적·육체적으로 육체는 사회적 인식과 구조적 문제, 그리고 문화산업 종사자·소비자의 잘못된 행태를 지속해서 알려야 한다. 그것만이 이선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제2의 이선균 사건을 예방하고 연예인이 대중문화 주역으로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크게 '연예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부문'과 '제2의 이선균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대중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부문'에 초점을 맞춰 10개 장(章)으로 나눠 이야기를 풀어낸다. 30여 년 동안 영화, 방송·연예계 현장을 취재해온 저자는 스타·연예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곁들여 한국 대중문화의 시대적 흐름을 짚으며 '어제'와 '오늘'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연예인들의 삶과 생활·데뷔과정, 연예기획사 중심의 스타(연예인 육성)시스템, 창작자 메이커(연출자·작가), 기획자 메이커, 팬덤 문화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언론

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며 '연예저널리즘이 '너절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스타 시스템과 연예인 문화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스타·연예인들은 '일회용 스타' (one-hit wonder)부터 67년 동안 방송·무대 활동을 펼친 고(故) 송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스타·연예인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같이 한국 사회의 불합리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잠수함 속 토끼'와도 같다. 저자는 "장수 연예인은 젊은 층이 삶의 전형으로 삼을 진정한 어른 부재의 공백을 메우며 이상적인 어른 사표(師表)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SKY 공화국의 학벌사회'를 타파한 중·고졸 스타들과 한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한국 대중문화가 전세계 속으로 파고들며 한류(韓流)를 이루고 있는 이때, 신간은 연예인과 스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신사우동호랑이·1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유골에 대한 기이한 취향=중세 역사 미스터리 '캐드펠 수사 시리즈'가 나왔다. 평화롭게 허브밭을 가꾸던 캐드펠 수사에게 미스테리한 명령 하나가 떨어진다. 이와 맞물려 영주는 화살에 맞아 시신으로 발견된다. 1138년의 잉글랜드에서 미지의 시신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독 살인죄 의혹을 둘러싸고 유일한 증거인 '수도사의 두건'을 분석한다.

〈북하우스·1만6800원〉

▲라디오 포포프=아홉 살 알프레드는 늘 홀로 지내면서 쓸쓸해한다. 어느 날 알프레드는 밝은 귀를 지닌 아만다를 만나고, 그녀의 집에서 오래된 라디오 송신기를 발견한다. 두 사람은 '잊힌 아이들'을 위해서 비밀 야간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해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주제로 책임감 없는 어른들을 질타한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비참한 현실 세계를 조명하면서 동화적, 환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다산어린이·1만6000원〉

▲작약은 물속에서 더 환한데=식물과 생명력, 순수한 감정의 울림에 천착하는 시편들을 묶었다. 사람이 언제 문학을 포용하는지, 문학은 어떻게 타자를 끌어당기는지에 대한 답을 기대할 수 있는 시라는 평을 받는 작품들이 담겨 있다. 여름과 식물, 동물과 자연물을 등을 모티브로 쓴 시편들이 차분한 언어로 구현됐다. 전작에서



'맨드라미'를 중심으로 펼쳐냈던 식물적 상상력을 버드나무가지, 레몬라임 등으로 확장한다.

〈문학동네·1만2000원〉

▲동경에대의 천재들=동경예술대학의 캠퍼스 풍경을 흥미롭게 담았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최고의 종합예술학교인 이곳에서는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 등이 배출될 만큼 예술의 산실이다. 입시경쟁의 풍경, 교수들의 아교 회의와 오케스트라 구성, 유희와 성악 클래스 등 모습을 담아냈다. 전공생들이 재학 중 펼쳐 나가는 미술과 음악 융합 콘서트를 비롯해 전 학장 사와 가즈키 인터뷰 등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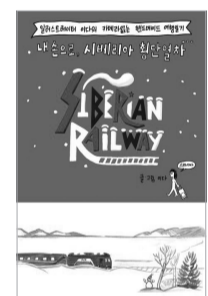
〈현역출판·2만1000원〉

그림일기 읽듯 술술~ 재밌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기

내 손으로, 시베리아 횡단열차

이다글·그림

이렇게도 재미있는 여행기라니. 지루한 구석이 단 한군데도 없다. 피식 피식 끝없이 새 나오는 웃음에 감동까지 있다. 책을 한 번 잡으면 놓기 어렵다. 결국엔 여행 리스트에 한번도 없었던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몇 구간만이라도 타볼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성한 '핸드메이드 여행 일기'다. 여행을 떠날 때면 "결국 남는 것은 사진"이라며 사진 찍는 데 모두가 몰두하는 시절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된 그의 책은 값지다. 이다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내 손으로, 발리', '내 손으로, 교토', '내 손으로, 치앙마이'를 펴냈다.

한 도시에 머물며 여행하고 그림을 그려온 이다가 이번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무려 9288km를 이동했다. 이후 다시 8시간 기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 며칠 머물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7개 도시 29일의 여정으로 기차를 타는 시간만 154시간이다.

이번 여행기 역시 B급 감성이 물씬 풍긴다. 밤에 자라는 잠은 안자고 조금이라도 더 놀아보고자 벼동대는 사람들이 모인 '잠·살·사(잠을 좋아하는 사람들)' 멤버와 떠난 여행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결국 '해피엔딩'이다. 술취한 러시아 승객 등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에게 치유받고, 에르미타주 미술관과 소비에트 생활박물관에서 마음에 꼭 드는 작품을 만났다. 저자는 일정과 준비를 꾸리는 과정, 미리 공부했던

러시아의 이모저모, 생생한 현장 여행기를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써내려 갔다. 직접 그린 지도와 약도, 관광지 티켓, 식당 영수증을 붙여 만든 컬렉션도 눈길을 끈다. 책의 당초 제목은 '내 손으로, 러시아'였다. 덕분에 횡단열차 이야기 뿐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르츠크츠,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러시아 각 도시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 먹을거리, 볼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이다가 여행을 떠난 시점은 2018년이다. 메모를 하고,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축적한 여행 노트를 기초 삼아 손으로 그리고 쓰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출간이 늦어졌다.

저자는 '살아 있는 한' 진행할 '내 손으로' 시리즈의 다음 후보지로 대만, 튀르키예, 이탈리아를 꼽았다. 어디든 기다려진다. '이다표 핸드메이드' 여행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재미있는 여행기이니 말이다.

〈미술문화·2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피노키오의 모형=1881년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피노키오' 이야기를 다시 만난다.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된 삽화와 어우러지는 목각 인형의 모형가는 '참된 인간이 되는 법'에 대한 교훈을 준다. 책은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한 것은 물론 거짓말의 폐단을 강조한다. 세 번의 거짓말에 얽힌 원작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했다. 〈푸른숲주니어·1만6800원〉

이를 하며 보낸 시간들은 오늘날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엄마와 아이의 수십 년 세대를 초월해 '동심'이라는 매개로 공감대를 자아낸다.

〈책 읽는 곰·1만5000원〉

▲엄마의 여름방학=1995년 엄마가 내 나이였던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했을까. 일기를 통해 되짚어본 과거의 엄마는 1995년 8월 2일 수요일 언니와 둘이서 기차를 타고 외갓집에 갔다. 담력훈련, 물놀

▲엄마가 체포되었어요=숲속 나무들이 벌목꾼들의 손에 잘려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한다. 밤사이 엄마는 벌목꾼의 기계를 고장 냈다는 죄목으로 경찰서에 수감된 것이다. 엄마 없이 둘만 남은 남매는 위급한 상황에 벌어보라던 편지봉투를 꺼낸다. 그 속에는 지폐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지양어린이·1만4500원〉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